**<경계 위의 우리들> for Orchestra**

<경계에 선 우리들>이라는 이 곡은 삶의 다양한 경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.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경계와 마주하게 되며, 이 경계들은 종종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심오한 고독과 고통을 가져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경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

하지만 이 곡은 단지 그런 아픔과 고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는 경계를 넘어서거나, 더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는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.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. 우리는 모두 경계 위에서 흐릿합니다.

그러나 이 곡에서는 그런 혼란을 넘어 경계를 극복하고 세상과, 때로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는 순간의 기쁨과 감사함을 찬양합니다. 이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취가 아닌,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경험에 대한 찬사입니다.

1. 곡 개요

<경계 위의 우리들>은 교향시 작품이다. 교향시란 일반적으로 관현악에 의하여 시적(詩的) 또는 회화적(繪畵的)인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단악장의 표제음악(標題音樂, program music)으로, 단일 악장으로 된, 프로그램적 내용을 가진,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형식이다.